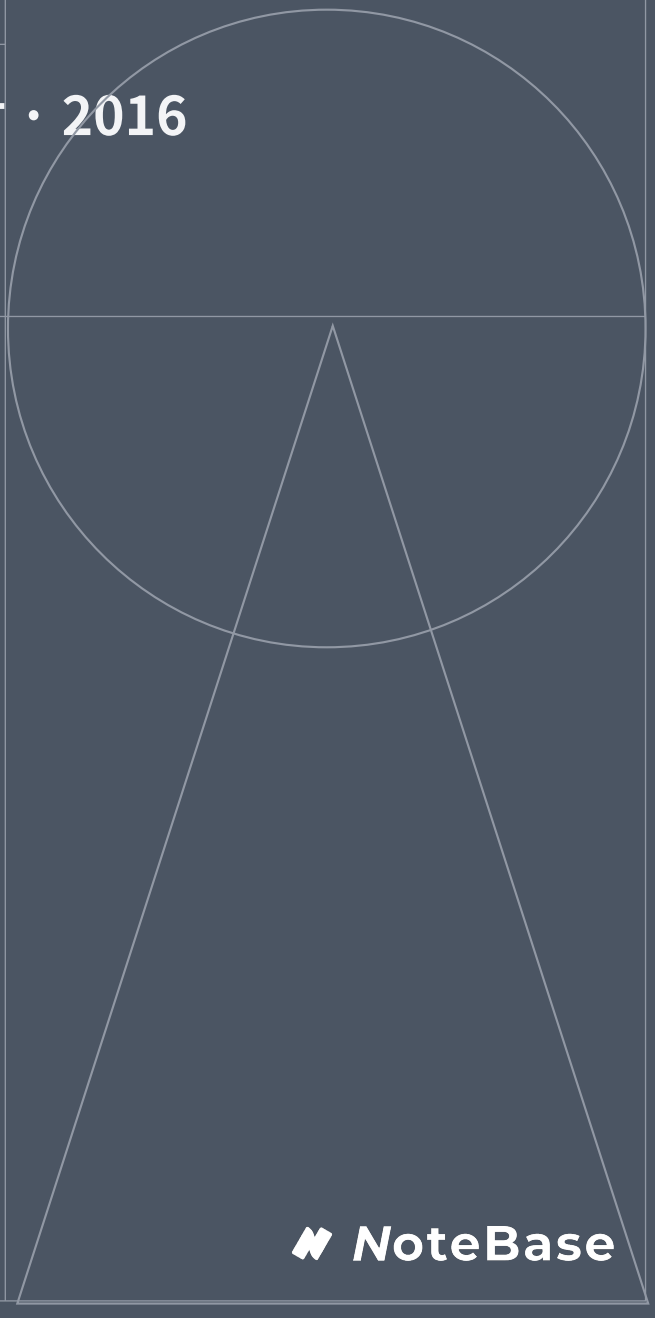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6

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②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④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목적적합성의 하위 속성인 예측가치·확인가치와 중요성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측가치는 재무정보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가치이다.
확인가치는 재무정보가 과거의 평가나 예측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할 때 인정되는 가치이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정보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둘 모두에 따라 판단하는 기업특유의 목적적합성이다.
따라서 기준제정기구가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획일적 중요성 금액기준이나 사전 판단기준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미래 결과 예측 과정에 입력정보로 쓰일 수 있으면 예측가치를 가진다. 미래 현금흐름이나 성과 전망에 도움을 주는지가 핵심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중요성은 기업특유 판단이므로 기준제정기구가 일률적 수치기준을 정하거나 개별 상황의 중요성을 선결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가 된다.
③ O: 중요성을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정보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둘 모두에 근거한 기업특유의 목적적합성으로 설명한 것으로 개념체계에 부합한다.
④ O: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가치를 가진다. 이는 확인가치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은 모두 목적적합성 아래 개념이라 문장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요성만은 반드시 개별 기업 맥락에서 판단하는 기업특유 개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는 이 지점을 기준제정기구의 일률 판단으로 바꾸어 함정을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적합성 관련 선지는 먼저 기능으로 나눈다. 미래 예측에 쓰이면 예측가치이고, 과거 평가를 확인·수정하게 하면 확인가치이다. 중요성 문장은 누가 판단하는지를 보며, 개별 기업 상황에서 성격·규모로 판단한다고 나오면 옳고 획일 기준을 미리 정한다고 나오면 틀리다.

암기 포인트

예측가치=미래 예측, 확인가치=과거 검증, 중요성=기업특유 판단이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0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에 구입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정액법(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 ₩100,00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16년 1월 1일 동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잔존가치는 ₩40,000으로 재추정하였고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6년 말에 인식해야 할 동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단,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① ₩84,000

② ₩90,000

③ ₩96,000

④ ₩14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의 변경을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변경 시점 장부금액에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0원
기존 내용연수: 10년
기존 잔존가치: 100,000원
기존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1,000,000 - 100,000)/10 = 90,000$원
2015년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90,000원 × 6년 = 540,000원
2016년 1월 1일 장부금액: 1,000,000원 - 540,000원 = 460,000원
변경 후 잔존가치: 40,000원
변경 후 남은 사용기간: 5년

사용할 공식

변경 후 감가상각대상액은 변경 시점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차감해 구한다. 연수합계법의 첫 해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새 잔존가치) × 남은 첫 해의 연수1+2+3+4+5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과거를 소급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 현재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미래 기간에 전진 적용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6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460,000원이다.
2. 변경 후 감가상각대상액은 460,000원 - 40,000원 = 420,000원이다.
3. 남은 5년의 연수합은 1+2+3+4+5 = 15이다.
4. 2016년은 변경 후 첫 해이므로 가중치는 5/15이다.
5. 2016년 감가상각비는 420,000원 × 5/15 = 14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84,000원"은 변경 후 감가상각대상액 420,000원을 남은 5년으로 단순 정액배분한 값이다.
- 이 문항은 2016년부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첫 해 감가상각비는 420,000원 × 5/15 = 14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84,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40,000원이다.

② X
- "90,000원"은 기존 정액법을 계속 적용한 연간 감가상각비이다.
-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모두 2016년부터 새 추정으로 반영하므로 90,000원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틀린 표현은 "9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40,000원이다.

③ X
- "96,000원"은 새 잔존가치 40,000원을 원가 1,000,000원에 바로 대입하여 정액법처럼 계산한 값 $(1,000,000-40,000)/10$에 해당한다.
- 변경은 과거 취득원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 장부금액 460,000원을 기준으로 전진 처리한다. 틀린 표현은 "96,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40,000원이다.

④ O
- 2015년말 장부금액 460,000원에서 새 잔존가치 40,000원을 차감하면 감가상각대상액은 420,000원이다.
- 여기에 남은 5년의 연수합계법 첫 해 비율 5/15를 적용하면 140,000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소급재작성으로 오해하거나, 변경 후에도 정액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다. 특히 ①은 변경 후 금액만 반영하고 방법은 바꾸지 않은 경우이고, ③은 새 잔존가치를 과거 원가와 원래 내용연수에 소급 적용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바뀌면 먼저 변경 직전까지의 장부금액을 구한 뒤, 그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새 잔존가치와 새 방법을 미래 기간에만 적용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방법·잔존가치·내용연수 변경은 소급이 아니라 장부금액 기준 전진 적용이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4년 초에 시작되어 2016년 말에 완성되는 건설계약을 ₩300,000에 수주하였다. (주)한국은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건설계약과 관련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6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당기발생원가	₩30,000	₩50,000	₩120,000
완성 시까지 추가소요원가	₩70,000	₩20,000	–

① ₩60,000 이익

② ₩60,000 손실

③ ₩80,000 이익

④ ₩80,000 손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행기준에서 진행률과 누적공사손익을 이용해 2016년 당기 공사손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총계약금액: 300,000원
- 당기발생원가: 2014년 30,000원, 2015년 50,000원, 2016년 120,000원
- 완성 시까지 추가소요원가: 2014년 말 70,000원, 2015년 말 20,000원, 2016년 말 0원

구해야 할 값:
- 2016년에 인식할 공사손익

주의할 조건:
-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계약원가이다.
누적수익은 계약금액 × 진행률이다.
당기공사손익은 당기인식수익 - 당기발생원가이며, 누적기준으로는 당기손익 = 당기말 누적손익 - 전기말 누적손익로 구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진행기준과 원가기준 진행률 계산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14년 말 추정총계약원가는 30, 000 + 70, 000 = 100, 000원이다. 따라서 진행률은 30, 000 ÷ 100, 000 = 30%이고, 누적수익은 300, 000 × 30% = 90, 000원, 누적손익은 90, 000 − 30, 000 = 60, 000원이다.
2. 2015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30, 000 + 50, 000 = 80, 000원이고, 추정총계약원가는 80, 000 + 20, 000 = 100, 000원이다. 따라서 진행률은 80%이고, 누적수익은 300, 000 × 80% = 240, 000원, 누적손익은 240, 000 − 80, 000 = 160, 000원이다.
3. 2016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30, 000 + 50, 000 + 120, 000 = 200, 000원이고, 공사가 완성되므로 추정총계약원가도 200,000원이다. 따라서 누적수익은 300,000원, 누적손익은 300, 000 − 200, 000 = 100, 000원이다.
4. 2016년 당기손익은 2016년 말 누적손익 100,000 - 2015년 말 누적손익 160,000 = -60,000원이다. 따라서 2016년에는 60,000원 손실을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60,000원 이익은 2014년 말 누적이익이다. 문제는 2016년 당기손익을 묻고 있으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60,000 이익"이다. 올바르게는 "2016년에는 60,000 손실"이다.

② O
- 2016년 당기손익은 누적손익 기준으로 $100,000 - 160,000 = -60,000$원이므로 60,000원 손실이 맞다.

③ X
- 80,000원 이익은 진행률이나 누적손익을 잘못 계산한 값이다. 2016년에는 실제 총원가가 200,000원으로 늘어나 누적이익이 100,000원으로 감소하므로 당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 틀린 표현은 "80,000 이익"이다. 올바르게는 "2016년에는 60,000 손실"이다.

④ X
- 80,000원 손실은 손실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틀리다. 전기말 누적손익 160,000원과 당기말 누적손익 100,000원의 차이는 60,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80,000 손실"이다. 올바르게는 "60,000 손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당기손익과 누적손익을 혼동하는 점이다. 2016년 총원가가 크게 증가해 최종 누적이익이 줄어들었으므로, 완성연도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 조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사계약 계산형 문제는 각 연도 말의 누적발생원가, 추정총계약원가, 진행률, 누적손익을 먼저 구한 뒤 마지막에 당기손익을 전기말 누적손익과의 차이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진행기준 당기손익은 당기 수치만 보지 않고 누적손익의 증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의 자산 분류, 부채 평가원칙, 국가안보 관련 자산·부채의 인식 예외, 순자산 분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현재가치 평가는 장래에 받을 금액이나 지급할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당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현재가치가 아니라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고, 장기연불조건 거래나 장기금전대차거래처럼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만 현재가치 평가를 한다. 순자산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이 아니라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국가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에 주민편의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 주민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쓰이는 분류이다.
- 틀린 표현: "주민편의시설"
- 올바른 표현: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이 들어가며,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X
- 부채는 원칙적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현재가치 평가는 예외적 평가이다.
- 틀린 표현: "원칙적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장기성 채무 등에 한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O
-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지는 이 인식 예외를 정확히 적었다.

④ X
-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은 지방회계 계열에서 사용하는 순자산 분류이다. 국가회계기준의 순자산 분류와 다르다.
- 틀린 표현: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올바른 표현: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용어를 뒤섞은 함정이다. ②는 부채 평가에서 예외적인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분류체계와 평가원칙을 따로 외우지 않으면 ①, ②, ④가 모두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계기준 조문형 문제는 먼저 분류체계가 국가용인지 지방용인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평가 문장에서 "원칙적으로"와 "예외적으로"가 뒤바뀌었는지를 본다. 국가안보 관련 문장은 자산과 부채 모두 인식 예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가회계는 무형자산이 들어가고 주민편의시설은 빠지며, 부채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순자산조정이다.

NoteBase

문 5. (주)대한은 2016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주)민국의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교환시점에서 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명확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이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구분	(주)대한	(주)민국
장부금액	₩2,000,000	₩5,000,000
공정가치	₩2,700,000	₩3,100,000

① ₩2,500,000

② ₩3,100,000

③ ₩3,200,000

④ ₩3,6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교환에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대한이 넘겨준 기계장치 장부금액 2,000,000원
- 대한이 넘겨준 기계장치 공정가치 2,700,000원
- 추가 지급 현금 500,000원
- 민국 기계장치 공정가치 3,100,000원

구해야 할 값:
- 대한이 새로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주의할 조건: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가 명확하므로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취득원가 = 넘겨준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한 현금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상업적 실질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교환은 교환대가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대한이 실제로 이전한 대가는 자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2,700,000원과 추가 현금 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대한이 이전한 비화폐성 대가의 공정가치는 2,700,000원이다.
2. 여기에 추가 지급한 현금 500,000원을 더한다.
3. 따라서 취득원가는 2,700,000원 + 500,000원 = 3,2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2,500,000원은 장부금액 2,000,000원에 현금 500,000원을 더한 값이다.
- 이는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의 접근이다.
-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 대신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2,700,000원에 현금 500,000원을 더해 3,200,000원으로 본다.

② X
- 3,100,000원은 민국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만 본 값이다.
- 대한은 자산 교환 외에 현금 500,000원도 추가로 지급했으므로 대한이 이전한 대가 전체는 3,200,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취득원가를 받은 자산의 표시 공정가치 숫자 하나로만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교환대가 전체를 반영해 3,200,000원으로 측정한다.

③ O
- 넘겨준 자산의 공정가치 2,700,000원에 추가 지급 현금 500,000원을 더하면 3,200,000원이다.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이므로 이 금액이 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된다.

④ X
- 3,600,000원은 민국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3,100,000원에 현금 500,000원을 다시 더한 값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금을 중복 반영한 오답이다.
-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3,100,000원은 이미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자체의 가치이고, 여기에 현금을 다시 가산해 취득원가를 3,600,000원으로 잡지 않는다.
- 올바르게는 대한이 이전한 대가 기준으로 3,200,000원을 취득원가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문구를 놓치고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과,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숫자에 추가 지급 현금을 다시 더해 이중 계산하는 점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화폐성자산 교환 문제는 먼저 상업적 실질 유무와 공정가치 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가 명확하면 넘겨준 자산의 공정가치에 지급 현금을 가감해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장부금액 기준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 없으면 장부금액이 기준이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의 2016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00,000이다. 회계오류가 다음과 같을 때, 회계오류 수정 후 2016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회계오류 사항	2015년	2016년
기말재고자산 오류	₩8,000 과소계상	₩4,000 과대계상
선급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3,000	₩2,000

① ₩287,000

② ₩288,000

③ ₩289,000

④ ₩29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기 오류의 이월효과를 반영하여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정 전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00,000원이다.
기말재고자산 오류: 2015년 기말재고 8,000원 과소계상, 2016년 기말재고 4,000원 과대계상이다.
선급비용 오류: 2015년 선급비용 3,000원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했고, 2016년 선급비용 2,000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다.
주의할 조건: 2015년 오류는 2016년 기초자산 오류로 이월되어 2016년 손익에 반전효과를 준다.

사용할 공식

재고오류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매출원가를 통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선급비용의 올바른 당기비용은 당기지급액 + 기초선급비용 - 기말선급비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재고와 선급비용 모두 전기 말 잔액이 당기 초 잔액으로 이어지므로, 단순히 해당 연도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기말의 연결관계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말재고자산 오류를 수정한다.
2015년 기말재고 8,000원 과소계상은 2016년 기초재고 8,000원 과소계상으로 이어진다. 기초재고가 과소계상되면 2016년 매출원가가 8,000원 과소계상되고, 이익은 8,000원 과대계상된다.
2016년 기말재고 4,000원 과대계상은 2016년 매출원가를 4,000원 과소계상하고, 이익을 4,000원 과대계상한다.
따라서 재고오류 때문에 2016년 이익은 총 12,000원 과대계상되었다.
2. 선급비용 오류를 수정한다.
2015년 말 선급비용 3,000원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2016년 기초선급비용이 3,000원 과소계상되었다.
2016년 말 선급비용 2,000원도 비용 처리했으므로 2016년 기말선급비용이 2,000원 과소계상되었다.
올바른 2016년 비용은 당기지급액 + 3,000 - 2,000 = 당기지급액 + 1,000이다. 그런데 수정 전에는 당기지급액만 비용으로 잡았으므로 비용이 1,000원 과소계상되고, 이익은 1,000원 과대계상되었다.
3. 최종 수정액을 반영한다.
수정 후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00,000 - 12,000 - 1,000 = 287,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287,000원은 재고오류로 과대계상된 12,000원과 선급비용 오류로 과대계상된 1,000원을 수정한 금액이다. 계산 결과가 287,000원이므로 맞는 선택지이다.
② X
288,000원이라는 금액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287,000원이다. 288,000원은 재고오류 12,000원만 반영하고 선급비용 오류로 인한 이익 과대계상 1,000원을 놓친 값이다.
③ X
289,000원이라는 금액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287,000원이다. 289,000원은 선급비용 오류의 방향을 거꾸로 보아 2016년 이익을 1,000원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덜 줄인 경우에 나오는 값이다. 실제로는 2016년 비용이 1,000원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이익을 1,000원 더 낮춰야 한다.
④ X
290,000원이라는 금액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287,000원이다. 290,000원은 전기 오류의 이월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2015년 기말재고 과소계상 8,000원과 2015년 선급비용 비용처리 3,000원이 2016년에도 영향을 주므로 2016년 오류만 따로 보는 계산은 틀린다.

오답 포인트

기말재고와 선급비용은 모두 전기 말 잔액이 당기 초 잔액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2016년 금액만 보지 않고 2015년 말 오류가 2016년에 어떤 방향으로 반전되는지까지 봐야 한다. 특히 선급비용은 기초선급비용 과소계상과 기말선급비용 과소계상을 함께 보지 않으면 1,000원 효과를 반대로 계산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기 오류가 포함된 계산형 문제는 먼저 기초 잔액으로 이월되는 항목인지 확인한 다음, 당기 손익에 미치는 방향을 기초와 기말로 나누어 판단한다. 재고는 매출원가 방향으로, 선급비용은 당기비용 = 당기지급액 + 기초선급비용 - 기말선급비용의 구조로 보면 정리가 된다.

암기 포인트

재고와 선급비용 오류는 당해연도 숫자만 보지 않고 기초와 기말의 연결효과까지 같이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세무조정 결과, ₩100,000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150,000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2017년에 소멸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18년 이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은 2016년에 30%이고,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7년에 25%, 2018년 이후에는 20%가 적용된다. 2016년 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① 차변: 법인세비용 ₩140,000, 이연법인세자산 ₩25,00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35,000, 이연법인세부채 ₩30,000

② 차변: 법인세비용 ₩130,000, 이연법인세자산 ₩30,00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35,000, 이연법인세부채 ₩25,000

③ 차변: 법인세비용 ₩170,000, 이연법인세자산 ₩25,00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65,000, 이연법인세부채 ₩30,000

④ 차변: 법인세비용 ₩160,000, 이연법인세자산 ₩30,00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65,000, 이연법인세부채 ₩2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시적차이의 방향에 따라 과세소득을 구하고, 소멸 시점의 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여 2016년 말 분개를 완성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원,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000원, 가산할 일시적차이 1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손금이 되므로 현재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익금이 되므로 현재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이연법인세는 소멸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5%,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를 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과세소득 = 회계이익 + 차감할 일시적차이 -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미지급법인세 = 과세소득 × 당기세율이다.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 소멸 시 세율이다.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 소멸 시 세율이다.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부담액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현재 과세소득과 미래 소멸세율이 모두 주어졌으므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함께 계산해 분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과세소득은 500,000 + 100,000 - 150,000 = 450,000원이다.
2. 미지급법인세는 450,000 × 30% = 135,000원이다.
3. 이연법인세자산은 100,000 × 25% = 25,000원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150,000 × 20% = 30,000원이다.
4. 법인세비용은 135,000 + 30,000 - 25,000 = 140,000원이다.
5. 따라서 분개는 차변 법인세비용 140,000원, 이연법인세자산 25,000원 / 대변 미지급법인세 135,000원, 이연법인세부채 3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세소득을 450,000원으로 계산하여 미지급법인세 135,000원이 나온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000원은 2017년에 소멸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은 25,000원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 150,000원은 2018년 이후에 소멸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는 30,000원이다.
- 따라서 법인세비용 140,000원, 미지급법인세 135,000원, 이연법인세자산 25,000원, 이연법인세부채 30,000원이 모두 맞다.

② X
- 미지급법인세 135,000원은 맞지만 이연법인세 금액이 뒤바뀌었다.
- 틀린 표현은 "이연법인세자산 30,000원, 이연법인세부채 25,000원"이다. 올바르게는 이연법인세자산 25,000원, 이연법인세부채 30,000원이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017년 세율 25%를,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18년 이후 세율 20%를 적용하므로 법인세비용도 130,000원이 아니라 140,000원이다.

③ X
- 이연법인세자산 25,000원과 이연법인세부채 30,000원은 맞지만, 현재 과세소득 방향을 반대로 잡아 미지급법인세를 잘못 계산한 선지이다.
- 틀린 표현은 "미지급법인세 165,000원, 법인세비용 17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미지급법인세 135,000원, 법인세비용 140,000원이다.
- 165,000원은 과세소득을 500,000 - 100,000 + 150,000 = 550,000원으로 잘못 잡을 때 나오는 값이다.

④ X
- 현재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모두 반대로 잡은 선지이다.
- 틀린 표현은 "미지급법인세 165,000원, 이연법인세자산 30,000원, 이연법인세부채 25,000원"이다. 올바르게는 미지급법인세 135,000원, 이연법인세자산 25,000원, 이연법인세부채 30,000원이다.
- 따라서 법인세비용도 160,000원이 아니라 140,000원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현재 세무조정의 플러스·마이너스로 바로 읽는 데 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차감이므로 현재 과세소득을 늘리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가산이므로 현재 과세소득을 줄인다. 또 이연법인세 측정에는 당기세율 30%가 아니라 소멸 시 세율 25%, 20%를 적용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계산형 문제는 먼저 일시적차이를 미래 기준으로 해석한 뒤 현재 과세소득에 어떤 방향으로 반영되는지 정한다. 그 다음 현재세율로 미지급법인세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소멸 시 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하여 법인세비용을 맞추면 된다.

암기 포인트

차감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 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 측정세율은 소멸연도 세율이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상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2016년도 매출원가는? (단, 상품과 관련된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자	적요	수량	단가	금액
1/1	기초재고	100개	₩8	₩800
3/4	매입	300개	₩9	₩2,700
6/20	매출	(200개)		
9/25	매입	100개	₩10	₩1,000
12/31	기말재고	300개		

① 실지재고조사법: ₩1,800, 계속기록법: ₩1,700

② 실지재고조사법: ₩1,750, 계속기록법: ₩1,700

③ 실지재고조사법: ₩1,700, 계속기록법: ₩1,750

④ 실지재고조사법: ₩1,800, 계속기록법: ₩1,75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중평균법을 전제로 실지재고조사법의 총평균단가와 계속기록법의 이동평균단가를 구분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고 100개(₩800), 3/4 매입 300개(₩2,700), 6/20 매출 200개, 9/25 매입 100개(₩1,000), 기말재고 300개이다.
구해야 할 값: 2016년도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실지재고조사법은 기간 전체의 총평균단가를 쓰고, 계속기록법은 매입 시점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한 뒤 매출 시점 단가를 적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실지재고조사법: 매출원가 = 판매가능상품원가 - 기말재고액이다.
계속기록법: 매출원가 = 매출수량 × 매출 시점 이동평균단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같은 가중평균법이라도 실지재고조사법은 기간말에 총평균을 한 번 계산하고, 계속기록법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평균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판매가능수량은 100 + 300 + 100 = 500개이고, 판매가능상품원가는 800 + 2,700 + 1,000 = ₩4,500이다.
2. 실지재고조사법의 총평균단가는 ₩4,500 ÷ 500개 = ₩9이다. 기말재고액은 300개 × ₩9 = ₩2,700이므로 매출원가는 ₩4,500 - ₩2,700 = ₩1,800이다.
3. 계속기록법에서는 6/20 매출 직전 재고만 본다. 그 시점의 평균단가는 (800 + 2,700) ÷ (100 + 300) = ₩8.75이므로 매출원가는 200개 × ₩8.75 = ₩1,750이다.
4. 9/25 매입은 6/20 매출 이후 거래이므로 계속기록법의 2016년도 매출원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재고단가에만 영향을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실지재고조사법의 ₩1,800은 맞지만 계속기록법의 ₩1,700이 틀리다. 계속기록법의 매출원가는 6/20 시점 이동평균단가 ₩8.75를 적용한 ₩1,750이다.
틀린 표현: 계속기록법 ₩1,700 → 올바르게는 계속기록법 ₩1,750이다.

② X
계속기록법의 ₩1,700이 틀리고, 실지재고조사법의 ₩1,750도 틀리다. 실지재고조사법은 기간 전체 판매가능상품원가 ₩4,500을 500개로 나눈 총평균단가 ₩9를 써야 하므로 매출원가는 ₩1,800이다.
틀린 표현: 실지재고조사법 ₩1,750, 계속기록법 ₩1,700 → 올바르게는 실지재고조사법 ₩1,800, 계속기록법 ₩1,750이다.

③ X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의 금액이 서로 바뀌어 있다. ₩1,700은 어느 방법에도 맞지 않고, ₩1,750은 계속기록법의 값이다.
틀린 표현: 실지재고조사법 ₩1,700, 계속기록법 ₩1,750 → 올바르게는 실지재고조사법 ₩1,800, 계속기록법 ₩1,750이다.

④ O
실지재고조사법은 총평균단가 ₩9를 적용하여 매출원가가 ₩1,800이고, 계속기록법은 6/20 매출 시점 이동평균단가 ₩8.75를 적용하여 매출원가가 ₩1,750이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중평균법이라는 말만 보고 두 방법의 매출원가가 같다고 처리하면 틀린다. 이 문항의 함정은 9/25 매입금액까지 포함한 총평균단가를 계속기록법의 6/20 매출에 잘못 적용하거나,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의 값을 서로 뒤바꾸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중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실지재고조사법인지 계속기록법인지 구분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은 기간말 총평균단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계속기록법은 매출 발생 직전까지의 재고로 이동평균단가를 계산한 뒤 그 단가를 매출수량에 곱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총평균은 기간말 1회, 이동평균은 매입 때마다 재계산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의 2016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6년도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이 ₩900,000 증가한 경우, 미지급비용의 증감은?

◯ 매출채권의 감소: ₩500,000
◯ 선수수익의 감소: ₩100,000
◯ 선급비용의 감소: ₩300,000
◯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 ₩200,000
◯ 미지급비용의 증가(또는 감소): ?

① ₩200,000 감소
② ₩200,000 증가
③ ₩400,000 감소
④ ₩400,000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간접법 조정원리를 이용해 미지급비용의 변동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매출채권 감소 500,000원, 선수수익 감소 100,000원, 선급비용 감소 300,000원,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200,000원, 영업활동현금흐름 증가 9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미지급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액이다.
주의할 조건은 유동자산 감소는 영업현금 유입 효과, 유동부채 감소는 영업현금 유출 효과, 유동부채 증가는 영업현금 유입 효과라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영업활동현금흐름 증가액 = 각 재무상태표 항목이 영업현금에 미치는 효과의 합계이다.
이 문제에서는 500,000 - 100,000 + 300,000 - 200,000 + x = 900,000으로 놓는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당기손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이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얼마나 증감시키는지를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채권 감소는 아직 못 받은 돈이 줄어든 것이므로 영업현금흐름을 500,000원 증가시킨다.
2. 선수수익 감소는 선수로 받은 부채를 수익으로 소멸시킨 것이므로 영업현금흐름을 100,000원 감소시킨다.
3. 선급비용 감소는 과거에 먼저 지급한 비용이 당기에 비용화된 것이므로 영업현금흐름을 300,000원 증가시킨다.
4.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는 비현금성 자산 증가로 보아 영업현금흐름을 200,000원 감소시키는 효과로 반영한다.
5. 따라서 현재까지의 합계는 500,000 - 100,000 + 300,000 - 200,000 = 500,000원이다.
6. 전체 영업활동현금흐름 증가액이 900,000원이므로 미지급비용 효과 x는 900,000 - 500,000 = 400,000원이다.
7. 미지급비용은 유동부채이므로 400,000원 증가는 영업현금흐름 400,000원 증가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미지급비용 200,000원 감소는 영업현금흐름에 200,000원 감소 효과를 준다. 문제의 목표치 900,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00,000원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400,000원 증가'이다.
② X. 미지급비용 200,000원 증가라면 총 영업현금흐름 증가는 500,000 + 200,000 = 700,000원에 그친다. 틀린 표현은 '200,000원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400,000원 증가'이다.
③ X. 미지급비용 400,000원 감소라면 총 영업현금흐름은 500,000 - 400,000 = 100,000원 증가가 된다. 방향부터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400,000원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400,000원 증가'이다.
④ O. 미지급비용 400,000원 증가는 유동부채 증가이므로 영업현금흐름을 400,000원 증가시킨다. 기존 합계 500,000원에 더하면 총 900,000원이 되어 조건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방향을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자산은 감소가 플러스, 부채는 증가가 플러스인데 이를 뒤집으면 ③처럼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를 자산 증가로 보고 차감하지 않으면 ② 같은 오답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업현금흐름 조정 문제는 각 항목을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분류한 뒤 자산 감소는 더하고 자산 증가는 빼며 부채 증가는 더하고 부채 감소는 빼는 순서로 판단한다. 그다음 주어진 총증가액과의 차이로 미지수 항목을 역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간접법 조정의 핵심은 자산은 역방향, 부채는 정방향이라는 점이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보험상품을 판매시점에 전액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주)한국은 기중에 보험상품 ₩20,000을 (주)대한에 판매하였다. (주)한국과 맺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대한이 수행한 결산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주)대한과 맺은 보험계약에 대해 수행해야 할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차변) 보험료비용 ₩10,000 (대변) 선급보험료 ₩10,000

① 차변: 선수보험료 ₩10,000, 대변: 보험료수익 ₩10,000

② 차변: 보험료비용 ₩10,000, 대변: 선급보험료 ₩10,000

③ 차변: 보험료수익 ₩10,000, 대변: 선수보험료 ₩10,000

④ 차변: 선수보험료 ₩10,000, 대변: 선급보험료 ₩1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판매 시점에 전액 부채로 잡는 경우 기간 경과분에 대해 어떤 결산수정분개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주)한국은 보험상품 판매 시점에 보험료 전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주)대한은 기존에 보험상품 20,000원을 구입하였다.
(주)대한의 결산수정분개가 차변 보험료비용 10,000원, 대변 선급보험료 10,000원이므로 20,000원 중 10,000원만큼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다.

핵심 개념

선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아직 제공하지 않은 보장서비스에 대해 미리 받은 금액을 뜻하는 부채이다.
보장기간이 경과하면 그만큼 선수보험료를 줄이고 보험료수익을 인식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계약자 측의 선급보험료 감소액을 보험회사 측의 선수보험료 감소액으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핵심은 이미 경과한 기간만큼은 보험회사가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부채를 줄이고 수익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차변 선수보험료 10,000원, 대변 보험료수익 10,000원은 기간 경과분만큼 부채를 감소시키고 수익을 인식하는 분개이므로 옳다.

② X
차변 보험료비용, 대변 선급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주)대한의 결산수정분개이다.
틀린 표현은 보험회사인 (주)한국이 비용과 선급자산을 잡는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차변 선수보험료 10,000원, 대변 보험료수익 10,000원이다.

③ X
차변 보험료수익, 대변 선수보험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수익을 줄이고 부채를 늘리는 반대분개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보험료수익과 선수보험료의 차변·대변 방향이다. 올바르게는 차변 선수보험료 10,000원, 대변 보험료수익 10,000원이다.

④ X
차변 선수보험료는 맞는 방향이지만 대변을 선급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회사 장부에 계약자 자산계정을 끌어온 것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대변 선급보험료이다. 올바르게는 대변 보험료수익 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보험계약자 장부와 보험회사 장부를 뒤섞으면 ②나 ④로 흔들리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주)대한의 수정분개를 그대로 (주)한국에 옮겨 적거나, 선수보험료와 선급보험료를 이름만 비슷한 계정으로 오해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계약 문제는 먼저 누가 장부를 작성하는지부터 구분한 뒤, 계약자라면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돌리고 보험회사라면 선수보험료를 수익으로 돌리는 대응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자에게는 선급보험료, 보험회사에게는 선수보험료이며 기간 경과 시 보험회사는 선수보험료를 줄이고 보험료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문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과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 수익을 언제, 얼마로, 어떤 조건에서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익 측정: 수익은 받은 대가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매할인과 수량리베이트는 차감한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계속 부담하면 판매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용역수익의 불확실성: 용역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회수 가능한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회수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익금액은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매매할인과 수량리베이트를 반영한 뒤 받은 대가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은 것이므로 판매로 보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③ X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도 높지 않으면 수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원가까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틀리다.
틀린 부분은 '수익과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수익은 인식하지 않지만,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발생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이다.

④ O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문장만 보고 수익을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맞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으면 그 원가는 자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 문제는 먼저 측정 기준이 공정가치인지, 다음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과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충족되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판단이 정리된다. 특히 용역거래에서 성과 추정이 불확실하면 수익 인식 여부와 발생원가의 비용 처리 여부를 따로 나누어 본다.

암기 포인트

회수 가능하면 수익, 회수 불확실하면 비용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4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인 사채(3년 만기, 표시이자율 5%)를 할인발행하였다. 2015년 1월 1일 동 사채의 장부금액은 ₩9,600이고, 2015년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600이다. (주)한국이 2016년 1월 1일 해당 사채를 ₩9,800에 조기상환하였다면,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① 차변: 사채 ₩10,000, 대변: 현금 ₩9,800, 사채상환이익 ₩200

② 차변: 사채 ₩10,000, 사채상환손실 ₩100, 대변: 현금 ₩9,800, 사채할인발행차금 ₩300

③ 차변: 사채 ₩10,000, 사채상환손실 ₩700, 대변: 현금 ₩9,800, 사채할인발행차금 ₩900

④ 차변: 사채 ₩10,000, 사채상환손실 ₩800, 대변: 현금 ₩9,8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상환 시점 장부금액을 구한 뒤 조기상환손익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원, 표시이자율 5%, 2015년 1월 1일 장부금액 9,600원, 2015년도 이자비용 600원, 조기상환금액 9,800원이다.
현금지급이자: 액면금액 10,000원 × 5% = 5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16년 1월 1일 상환 직전 장부금액,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상환손익이다.

사용할 공식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 - 현금지급이자이다.
상환 직전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 + 당기 상각액이다.
사채상환손익은 상환금액 - 상환 직전 장부금액으로 판단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할인발행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이 현금지급이자보다 크고, 그 차이만큼 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15년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600 - 500 = 100$원이다.
2. 2016년 1월 1일 상환 직전 장부금액은 $9,600 + 100 = 9,700$원이다.
3.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10,000 - 9,700 = 300$원이다.
4. 조기상환손실은 $9,800 - 9,700 = 100$원이다.
5. 따라서 분개는 차변 사채 10,000원, 사채상환손실 100원 / 대변 현금 9,8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사채상환이익 200원'이다. 상환금액 9,800원이 장부금액 9,700원보다 100원 크므로 이익이 아니라 사채상환손실 100원이 발생한다. 또한 대변에는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300원이 와야 한다.
② O: 사채 10,000원을 제거하고,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300원을 대변에 남기며, 현금 9,800원을 지급하면 차액 100원은 사채상환손실이 된다. 계산 결과와 분개가 모두 일치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채상환손실 700원'과 '사채할인발행차금 900원'이다. 할인발행차금 900원이 남아 있으려면 상환 직전 장부금액이 9,100원이어야 하나, 실제 장부금액은 9,700원이다. 올바르게는 사채상환손실 1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원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채상환손실 800원'과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원'이다. 할인발행차금 1,000원이 남아 있으면 장부금액이 9,000원이라는 뜻인데, 문제 조건상 2015년에 이미 100원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은 9,700원이다. 올바르게는 사채상환손실 1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2015년도 이자비용 600원을 그대로 손실로 보거나, 액면금액 10,000원과 상환금액 9,800원을 바로 비교하는 데 있다. 조기상환손익은 반드시 상환 시점 장부금액 9,700원과 상환금액 9,800원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조기상환 문제는 기초 장부금액에서 출발해 당기 상각액을 먼저 구하고, 그 결과로 상환 직전 장부금액을 계산한 뒤 상환금액과 비교해 손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지급이자보다 크고, 그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6년 10월 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00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단, 2015년 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으며, 미래현금흐름 추정액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매출채권	₩100,000	₩120,000
추정미래현금흐름	₩96,000	₩118,900

① 차변: 대손상각비 ₩900, 대변: 대손충당금 ₩900

② 차변: 대손상각비 ₩1,100, 대변: 대손충당금 ₩1,100

③ 차변: 대손충당금 ₩900,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900

④ 차변: 대손충당금 ₩1,100,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1,1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당금설정법에서 기말 필요 대손충당금 잔액을 구한 뒤, 기존 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추가 설정인지 환입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2015년 말 매출채권 100,000원, 추정미래현금흐름 96,000원
- 2016년 10월 1일 회수불능 매출채권 2,000원 발생
- 2016년 말 매출채권 120,000원, 추정미래현금흐름 118,900원

구해야 할 값:
- 2016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설정 분개

주의할 조건:
- 미래현금흐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차이는 무시한다.
- 충당금설정법에서는 실제 대손 발생 시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필요 대손충당금 잔액 = 매출채권 장부금액 - 추정미래현금흐름
당기 말 조정액 = 기말 필요 대손충당금 잔액 - 조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제는 기말에 회수가능액 기준으로 매출채권을 평가하는 상황이므로, 먼저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총액을 구하고 기존 충당금 잔액과 비교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15년 말 필요 대손충당금은 100,000원 - 96,000원 = 4,000원이다.
2. 2015년 초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므로 2015년 말 충당금 잔액은 4,000원이다.
3. 2016년 10월 1일 대손확정 2,000원은 차변 대손충당금 2,000원, 대변 매출채권 2,000원으로 처리하므로 조정 전 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다.
4. 2016년 말 필요 대손충당금은 120,000원 - 118,900원 = 1,100원이다.
5. 현재 충당금 2,000원을 기말 필요 잔액 1,100원으로 맞추려면 900원을 줄여야 하므로 차변 대손충당금 900원,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900원으로 분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손상각비 900원 / 대손충당금 900원은 충당금을 2,900원으로 늘리는 분개이므로 틀리다.
- 2016년 말 필요 충당금은 1,100원뿐이어서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것이 아니라 900원 환입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대손상각비 900원, 대손충당금 900원"이고, 올바르게는 "대손충당금 900원, 대손충당금환입 900원"이다.

② X
- 1,100원은 2016년 말에 필요한 최종 충당금 잔액이지 당기 추가 설정액이 아니다.
- 이 선지는 기존 충당금 2,000원 잔액을 무시하고 기말 필요 잔액 1,100원을 그대로 비용 처리한 것이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대손상각비 1,100원, 대손충당금 1,100원"이고, 올바르게는 기존 잔액과 비교한 차액 900원을 환입하는 분개이다.

③ O
- 2016년 말 필요 충당금은 1,100원이고 조정 전 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므로 900원을 줄여야 한다.
- 따라서 차변 대손충당금 900원,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900원이 맞다.

④ X
- 환입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틀리다.
- 1,100원을 환입하면 충당금 잔액이 900원만 남아 기말 필요 잔액 1,100원보다 200원 부족해진다.
- 틀린 표현은 "1,100원 환입"이고, 올바르게는 "900원 환입"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2016년 말의 1,100원을 당기 조정액으로 바로 보는 것이다. 1,100원은 기말에 남아 있어야 할 충당금 잔액이고, 실제 분개 금액은 기존 충당금 2,000원과의 차이인 900원이다. 또한 10월 1일의 대손확정을 대손상각비로 다시 처리하면 충당금설정법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충당금설정법 문제는 먼저 전기 말 충당금 잔액을 잡고, 당기 중 실제 대손 발생으로 차감한 뒤, 당기 말 필요 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남으면 대손충당금환입을 인식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충당금설정법은 "기말 필요잔액 - 조정 전 잔액 = 당기 조정액"으로 정리되며, 음수이면 환입이다.

NoteBase

문 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활동표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필수보충정보이다.

②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④ 장기연불조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필수보충정보와 자산·부채 평가기준의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유산자산 관련 정보가 주석이 아니라 필수보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금융리스·장기연불조건 채권채무의 평가원칙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 본문에 직접 표시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

핵심 구분

국세징수활동표와 유산자산의 종류·수량·관리상태는 필수보충정보에 속한다. 또한 금융리스는 리스료 현재가치와 리스자산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장기연불조건의 채권·채무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세징수활동표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필수보충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해를 돕는 보충정보라는 설명은 맞다.

② X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는 규칙상 필수보충정보로 제시된다. 틀린 표현은 '주석으로 표시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른 표현은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한다'이다.

③ O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지의 핵심 판단인 '낮은 금액으로 계상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④ O
장기연불조건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장기간에 걸친 금전거래의 시간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유산자산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옮겨 적어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필수보충정보와 주석의 구분을 흐리게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문제에서는 먼저 정보가 재무제표 본문인지, 주석인지, 필수보충정보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금융리스, 현재가치평가처럼 평가기준을 묻는 문장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인식·평가하는가'만 짚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유산자산 관리정보와 국세징수활동표는 필수보충정보, 장기연불 채권·채무는 중요하면 현재가치 평가이다.

NoteBase

문 15.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유형자산의 취득, 투자자산의 취득, 소송사건의 해결을 포함한다.

③ 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시하며, 성격별로 분류하거나 기능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④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비용 항목의 표시 원칙, 비용 분류 방식, 그리고 별도 공시가 필요한 항목의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의 재무성과를 표시하는 보고서이며,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비용 분류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로 나뉘며, 기능별 분류를 선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 성격별 추가 정보를 함께 공시한다.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 예시는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재고자산 감액, 자산 처분, 구조조정, 중단영업, 소송사건의 해결처럼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처럼 기능 기준으로 묶이므로 비용의 성격 정보가 약해진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과 같은 성격별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유형자산의 취득, 투자자산의 취득'이다.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한 대표 사례는 취득이 아니라 감액, 처분, 구조조정, 중단영업, 소송사건의 해결 등이다. 소송사건의 해결은 맞는 예시이지만 취득을 같은 성격의 예시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전체 선지는 틀리다.

③ O
비용은 빈도, 손익 발생가능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재무성과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세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 방법이 성격별 분류 또는 기능별 분류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④ O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하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이는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소송사건의 해결'이라는 맞는 예시를 끼워 넣어 전체 문장을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별도 공시 예시에서 핵심은 취득이 아니라 감액·처분·구조조정처럼 당기 손익에 특수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포괄손익계산서 선지는 먼저 비용 분류가 성격별인지 기능별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별도 공시' 예시가 취득인지 감액·처분인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기능별 분류에는 성격별 추가 공시가 따라오고, 별도 공시는 중요한 손익 사건 중심이라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기능별 분류에는 성격별 추가 공시가 붙고, 별도 공시 예시는 취득이 아니라 감액·처분·중단영업이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의 2016년 기초상품재고는 ₩50,000이고 당기매입원가는 ₩80,000이다. 2016년 말 기말상품재고는 ₩30,000이며, 순실현가능가치는 ₩23,000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기 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잔액으로 ₩2,000이 있는 경우, 2016년 말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① ₩3,000

② ₩5,000

③ ₩7,000

④ ₩9,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고자산을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때, 기말에 필요한 평가충당금과 당기에 추가로 인식할 평가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말상품재고 원가: 30,000원
- 순실현가능가치: 23,000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기존 잔액: 2,000원

구해야 할 값:
- 2016년 말 당기에 추가로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

주의할 조건:
-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는 기말에 필요로 하는 총 충당금이고, 당기 손실은 여기서 기존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 구한다.

사용할 공식

기말에 필요한 총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이다.
당기 추가 인식 손실은 기말 필요충당금에서 기존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X = (30,000 - 23,000) - 2,0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기말재고의 장부가액을 순실현가능가치 23,000원으로 맞추려면 총 7,000원의 충당금이 필요하고, 이미 2,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5,000원만 당기에 비용으로 더 인식하면 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말재고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를 구하면 30,000원 - 23,000원 = 7,000원이다.
2. 7,000원은 기말에 필요한 총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다.
3. 기존 충당금 잔액 2,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에 추가로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5,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당기 추가 인식액은 5,000원이어야 한다. 3,000원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 7,000원을 5,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뒤 다시 2,000원을 차감할 때 나올 수 있는 오산이다.
- 틀린 표현은 "3,000원"이고, 올바르게는 "5,000원"이다.

② O
- 기말에 필요한 총 충당금은 7,000원이고, 기존 충당금 2,000원이 이미 있으므로 추가 손실 인식액은 5,000원이다.

③ X
- 7,000원은 당기 손실이 아니라 기말에 필요한 총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다. 기존 잔액 2,000원을 차감하지 않으면 당기 비용을 과대계상하게 된다.
- 틀린 표현은 "7,000원"이고, 올바르게는 "5,000원"이다.

④ X
- 9,000원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 7,000원에 기존 충당금 2,000원을 더한 값이다. 기존 충당금은 추가로 더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금액이므로 차감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9,000원"이고, 올바르게는 "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 7,000원을 바로 당기 손실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문제는 기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원이 이미 있다는 조건이 핵심이므로, 총 필요충당금과 당기 추가 인식액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평가 문제는 먼저 기말재고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로 총 필요충당금을 구한 뒤, 기존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당기 손실 인식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평가손실은 "원가와 NRV의 차이 = 총 필요충당금, 총 필요충당금 - 기존 충당금 = 당기 손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도 매출총이익은?

매출총액	₩200,000	매입에누리	₩1,000	임차료	₩5,000
매입총액	₩100,000	매출운임	₩5,000	급여	₩15,000
매입운임	₩10,000	매출할인	₩5,000	매입할인	₩1,000
이자수익	₩10,000	기말상품재고	₩15,000	기계처분손실	₩2,000

① ₩102,000

② ₩112,000

③ ₩122,000

④ ₩132,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해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총액 200,000원, 매출할인 5,000원, 매입총액 100,000원, 매입운임 10,000원, 매입에누리 1,000원, 매입할인 1,000원, 기말상품재고 15,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16년도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매출운임, 임차료, 급여, 이자수익, 기계처분손실은 매출총이익 계산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이다.
순매출액 = 매출총액 - 매출할인이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 + 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이다.
순매입액 = 매입총액 + 매입운임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매출총이익은 상품 판매활동의 성과만 반영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은 제외하고 순매출액과 매출원가만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순매출액은 200,000 - 5,000 = 195,000원이다.
2. 순매입액은 100,000 + 10,000 - 1,000 - 1,000 = 108,000원이다.
3. 2016년 1월 1일 개업이므로 기초상품재고는 0원이다.
4. 매출원가는 0 + 108,000 - 15,000 = 93,000원이다.
5. 매출총이익은 195,000 - 93,000 = 102,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매출총이익은 102,000원이므로 옳다.

② X
112,000원은 기말상품재고 15,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195,000 - 83,000처럼 잘못 계산한 값이 아니라, 실제 계산 구조와 맞지 않는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총이익을 112,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02,000원이다.

③ X
122,000원은 매출할인 5,000원을 빼지 않거나 매입 차감항목을 일부 누락할 때 접근하기 쉬운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총이익을 122,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02,000원이다.

④ X
132,000원은 매출운임이나 임차료 같은 매출총이익과 무관한 항목을 잘못 포함하거나, 기말상품재고 차감을 반대로 처리할 때 떠올리기 쉬운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총이익을 132,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02,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운임을 매출 차감항목으로 오해하거나, 기말상품재고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또한 이자수익, 임차료, 급여, 기계처분손실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익이나 당기순이익 단계에서 반영되는 항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매매 문제는 먼저 순매출액을 구하고, 다음으로 순매입액과 기말재고를 반영해 매출원가를 계산한 뒤, 마지막에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순서로 판단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항목은 매출총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과 매출원가만 본다. 매출운임은 제외하고, 기말상품재고는 매출원가에서 뺀다.

NoteBase

문 18. (주)대한은 (주)민국에 TV를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6년 초 (주)대한은 TV 10대(대당 판매가격 ₩1,000,000, 대당 원가 ₩800,000)를 (주)민국에 발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발송비 ₩100,000을 지급하였다. (주)민국은 (주)대한으로부터 2016년 초 수탁한 TV 10대 중 8대를 2016년도에 판매하였다. (주)민국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대한이 2016년도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① ₩6,400,000

② ₩6,480,000

③ ₩6,500,000

④ ₩8,1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탁판매에서 적송품 원가에 포함되는 발송비를 반영하여 판매된 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TV 10대, 대당 원가 800,000원, 발송비 100,000원, 판매수량 8대이다.
구해야 할 값: 2016년도에 인식할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발송비 100,000원은 위탁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보내기 위해 든 원가이므로 적송품 원가에 포함되고, 10대 전체에 배분한 뒤 판매된 8대분만 비용화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판매된 수량 × 대당 적송품 원가
대당 적송품 원가 = (총 원가 + 발송비) / 총 수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위탁판매에서도 판매 전까지 재고는 위탁자 자산이므로, 위탁품을 보내는 데 직접 든 발송비는 적송품 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총 적송품 원가를 전체 수량에 배분한 뒤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총 적송품 원가를 구하면 8,000,000원 + 100,000원 = 8,100,000원이다.
2. 대당 적송품 원가는 8,100,000원 / 10대 = 810,000원이다.
3. 판매된 8대의 매출원가는 810,000원 × 8대 = 6,48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6,400,000원은 대당 원가 800,000원만 반영하여 8대 × 800,00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발송비를 원가에서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발송비 100,000원을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② O
총 적송품 원가 8,100,000원을 10대로 나누면 대당 810,000원이고, 판매된 8대의 매출원가는 6,480,000원이다. 위탁판매에서 발송비를 포함한 적송품 원가를 판매수량에 대응시킨 계산이므로 옳다.

③ X
6,500,000원은 8대의 매출원가 6,400,000원에 발송비 100,000원을 전액 가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발송비 전액을 올해 판매분에만 붙인 점이다. 올바르게는 발송비를 10대 전체에 배분하여 판매된 8대분만 반영해야 한다.

④ X
8,100,000원은 10대 전체의 적송품 원가 총액이다. 틀린 표현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2대분까지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미판매 2대분 원가는 기말 적송품으로 남기고 판매된 8대분만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위탁판매에서는 상품을 수탁자에게 보냈다고 해서 바로 비용화되지 않는다. 발송비를 아예 빼는 실수와, 발송비 전액이나 전체 적송품 원가를 당기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탁판매 계산문제는 먼저 판매 전까지 재고가 누구 자산인지 확인한 뒤, 위탁품 관련 부대원가를 적송품 원가에 포함한다. 그다음 총원가를 전체 수량에 배분하고 실제 판매수량에만 곱해 매출원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탁품 발송비는 적송품 원가에 포함되고, 매출원가는 판매된 수량만큼만 인식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201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6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20,000인 경우, 2016년 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16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2015년 말	2016년 말
공정가치	₩920,000	₩580,000

① ₩150,000

② ₩280,000

③ ₩330,000

④ ₩38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재평가감소, 손상차손을 구분하여 2016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취득원가: 1,000,000원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 2015년 말 공정가치: 920,000원
- 2016년 말 공정가치: 580,000원
- 2016년 말 회수가능액: 420,000원

구해야 할 값:
-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당기비용

주의할 조건:
-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제거 방식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 재평가감소는 기존 재평가잉여금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 손상차손도 재평가모형 자산이면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범위만큼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가상각비 = 재평가 후 장부금액 - 잔존가치남은 내용연수
재평가감소와 손상차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단순 손상차손 계산이 아니라 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후속 측정 순서를 묻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재평가감소와 손상차손의 당기손익 인식액을 구분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15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
2. 2015년 말 공정가치가 920,000원이므로 재평가잉여금 120,000원이 발생한다.
3. 2016년 감가상각비는 920,000원 ÷ 4년 = 230,000원이다.
4. 2016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920,000원 - 230,000원 = 690,000원이다.
5. 2016년 말 공정가치가 580,000원이므로 재평가감소는 110,000원이다. 이는 기존 재평가잉여금 120,000원 범위 안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6. 재평가 후 장부금액 580,000원과 회수가능액 420,000원을 비교하면 손상차손은 160,000원이다.
7. 기존 재평가잉여금은 120,000원에서 110,000원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10,000원만 남아 있다. 따라서 손상차손 160,000원 중 10,000원은 기타포괄손익, 150,000원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된다.
8. 2016년 당기손익 비용은 감가상각비 230,000원 + 손상차손 150,000원 = 38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50,000원은 손상차손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만 반영한 값이다. 이 문제는 2016년 당기비용 전체를 묻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230,000원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당기비용을 손상차손만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380,000원이다.

② X
280,000원은 손상차손의 당기손익 인식액을 50,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오답이다. 재평가감소 110,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손상차손 160,000원 중 남은 잉여금 1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이 당기손익으로 간다. 올바르게는 230,000원 + 150,000원 = 380,000원이다.

③ X
330,000원은 손상차손의 당기손익 인식액을 100,000원으로 잘못 본 오답이다. 2016년 말에는 재평가잉여금이 10,000원만 남아 있으므로 손상차손 160,000원 중 150,000원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올바르게는 380,000원이다.

④ O
2016년 당기손익 비용은 감가상각비 230,000원과 손상차손의 당기손익 인식액 150,000원의 합계 380,000원이다. 재평가감소 110,000원과 손상차손 중 10,000원은 재평가잉여금 차감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손익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공정가치 하락분 110,000원을 전부 당기손익 비용으로 넣거나, 손상차손 160,000원 전체를 바로 비용으로 보는 점이다. 이 문항은 재평가모형 자산이므로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분리하지 않으면 ①, ②, ③ 같은 오답으로 흐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계산형은 연도말마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먼저 구하고, 다음에 재평가감소와 손상차손을 순서대로 반영한다. 그 뒤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기타포괄손익 처리분과 당기손익 처리분을 나누면 정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모형 자산의 감소는 먼저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고, 남는 감소분만 당기손익으로 간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6년 중 장기보유 목적으로 A주식을 매입하였고, 단기시세차익의 목적으로 B주식을 매입하였다. (주)한국은 2016년 말 A주식과 B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주식에 대한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6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취득한 주식은 발행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목	취득원가	2016년 말 공정가치
A주식	₩100,000	₩90,000
B주식	₩60,000	₩70,000

① 당기순이익이 ₩10,000 증가한다.

② 기타포괄손익이 ₩10,000 감소한다.

③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④ 총포괄손익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보유 목적 주식과 단기매매 목적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총포괄손익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주식은 장기보유 목적이고 발행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문항에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본다.
B주식은 단기시세차익 목적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본다.
A주식은 100,000원에서 90,000원으로 10,000원 하락했고, B주식은 60,000원에서 70,000원으로 10,000원 상승했다.

핵심 개념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값이므로 두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NoteBase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보유 목적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위치를 먼저 구분해 판단한다. B주식의 평가이익 10,000원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A주식의 평가손실 1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증가하지만 총포괄손익의 순증감은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B주식은 단기매매증권이므로 공정가치 상승 10,000원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② O
A주식은 매도가능증권이므로 공정가치 하락 10,000원이 기타포괄손익 감소로 반영된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이 10,000원 감소한다.

③ X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B주식의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이익잉여금은 10,000원 증가한다.

④ O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이다.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하고 기타포괄손익은 10,000원 감소하므로 총포괄손익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A주식의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가기 때문에 순자산 전체는 상쇄되어 보일 수 있지만, B주식의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 증가로 연결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맞는 선지로 오인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식평가 문제는 먼저 보유 목적을 확인하고, 그다음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가는지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지를 구분해 본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총포괄손익에 어떤 항목이 연결되는지를 순서대로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단기매매는 당기손익, 장기보유는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은 둘의 합으로 본다.

NoteBase